

##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, 정부안 제출 후 10일 만에 신속하게 여야간 합의를 거쳐 국회 확정

- ‘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’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인 26.2조원 유지
- 농어민 유가보조금, 나프타 수급, 모두의 카드(기존 K-패스)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
- 현 상황에 따른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집행 예정

2026년 4월 10일(금) 국회 본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「2026년 추가경정예산(안)」이 의결·확정되었다.

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·융자, 보증기관 출연 등 △0.6조원을 감액하고,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(기존 K-패스) 반값 할인, 국제 정세 불안정성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,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및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,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 총 0.6조원을 증액하였다.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하여 추경예산 규모는 정부안의 26.2조원 수준을 유지하였다.

확정된 '26년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.8% 증가하며,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(△3.8%)와 국가채무비율(50.6%)은 정부안 수준과 동일하게 전망된다.

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. 이를 위해 내일(4.11일)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(안) 의결한 후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신속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즉각적인 집행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김정애 (044-214-2330) 박근형 (rmsgudkorea@korea.kr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	--

## < 국회 확정 추경예산의 주요 특징 >

### ①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

- ① 중동전쟁 심화에 따라 **나프타 가격 급등\*** 및 **수급 차질**로 석유화학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어 종량제 쓰레기봉투 대란 등 석유화학제품 공급 불안 가중

\* 나프타 가격(\$/MT) : (2.27) 652 → (4.6) 1,341

- ② 무기질비료의 주 원료인 **요소 가격 상승세\***가 지속됨에 따라 **비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** 등으로 **농가의 부담이 증가**

\* 요소 가격(\$/톤) : (2.27) 484 → (3.31) 750 → (4.8) 795

⇒ 중동상황 지속으로 경제·산업에 파급효과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안에 편성했던 나프타, 무기질비료 등에 대한 지원을 **대폭 강화**

※ ① 나프타 : (지원물량) 213 → 261만톤, (단가) 304 → 344\$/톤

② 무기질비료 : (지원물량) 14 → 24만톤, (단가) 18 → 24만원/톤

### ②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국회, 수혜 계층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수정·보완

- ① 국회 등에서 **대중교통 이용 유도**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요구  
→ **일률적인 환급률 상향 방식에서 반값 할인**으로 전환

- ② 정부안에 반영된 **어업인·시설원예농가·연안화물선** 외 다른 수혜 집단의 유류비 지원 요구에 대응, **임업종사자·농기계·전세버스\*** 등으로 대상 확대

\* 전세버스는 지방세를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(시행령 개정)

### ③ 감액 범위(△0.6조원) 내에서 증액하여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금번 추경의 기본방향 준수 → 최종 규모는 정부안 수준 유지

### ④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정부안 제출 후 10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·확정

\* 정부안 편성까지 포함하는 경우 소요기간은 29일로 최근 20년내 가장 신속한 처리 ('06년 1회 추경은 공식화 이후 21일 만에 국회 통과)

**참 고**

**'26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심의 변경내용**

**I. '26년 추가경정예산 전체모습**

규모	[정부안] 26.2조원 → [국회확정] 26.2조원(정부안 유지)			
	(정부안)	(국회확정)	(증감)	
주 요 내 용	<b>[ 합 계 ]</b>	26.2조원	26.2조원	-
	<b>① 고유가 부담 완화</b>	10.1조원	10.4조원	+0.3
	▶ 전국민 부담 경감 (석유최고가격제, 대중교통 환급)	5.1	5.2	+0.1
	▶ 고유가 피해지원금	4.8	4.8	-
	▶ 에너지 복지	0.2	0.4	+0.2
	<b>② 민생 안정</b>	2.8조원	2.8조원	-
	▶ 취약계층 지원	0.8	0.8	-
	▶ 청년 창업·일자리	1.9	1.9	-
	▶ 고물가 대응	0.1	0.1	-
	<b>③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</b>	2.6조원	3.0조원	+0.3
	▶ 피해기업·산업 지원	1.1	1.1	-
	▶ 에너지·신산업 전환	0.8	1.0	+0.1
	▶ 공급망 안정화	0.7	0.9	+0.2
	<b>④ 지방재정 보강 등</b>	9.7조원	9.7조원	-
	<b>⑤ 국채 상환</b>	1.0조원	1.0조원	-
<b>※ 국회 감액</b>	-	△0.6조원	△0.6	

## II. 국회 확정된 최종 총량

### □ 총지출은 753.0조원 (전년 대비 +11.8%)

- (총수입) 본예산 675.2 → 추경 700.6조원(전년 대비 +7.5%)
- (총지출) 본예산 727.9 → 추경 753.0조원(전년 대비 +11.8%)

### □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△3.8%, 국가채무비율 50.6%

- (관리재정수지) 본예산 △107.8 → 추경 △107.6조원(본예산 대비 +0.2조원)  
GDP 대비 △3.9 → △3.8%(본예산 대비 +0.1%p)
- (국가채무) 본예산 1,413.8 → 추경 1,412.8조원(본예산 대비 △1.0조원)  
GDP 대비 51.6 → 50.6%(본예산 대비 △1.0%p)

(단위: 조원)

	'25년 본예산	'26년 본예산	'26년 추경
◇ 총수입 (증가율)	651.6 (6.4)	675.2 (3.6)	700.6 (7.5)
◇ 총지출 (증가율)	673.3 (2.5)	727.9 (8.1)	753.0 (11.8)
■ 통합재정수지 (GDP대비,%)	△21.7 (△0.8)	△52.7 (△1.9)	△52.5 (△1.9)
■ 관리재정수지 (GDP대비,%)	△73.9 (△2.8)	△107.8 (△3.9)	△107.6 (△3.8)
■ 국가채무 (GDP대비,%)	1,273.3 (48.1)	1,413.8 (51.6)	1,412.8 (50.6)

### Ⅲ. 국회 주요 증감 내역

#### 1. 증액 반영 : +0.6조원

##### ① 고유가 부담 완화 : +0.3조원

○ (대중교통) 모두의 카드(기존 K-패스)를 개편하여 대중교통 이용 촉진(+0.1조원)

- ①정액형의 가격을 절반 이상 할인한 '3만원 반값패스' 출시

\* (일반) 6.2 → 3만원, (청년·2자녀·어르신) 5.5 → 2.5만원, (3자녀·저소득) 4.5 → 2.2만원

\*\* 일반형 기준 모두의 카드가 기후동행카드(6.2→3.2만원, 서울시) 대비 할인금액이 더 큼

- ②기본형은 정부안에 반영된 일률적 환급률 상향 방식에서 시차출퇴근 시간대\* 추가 환급(+30%p) 방식으로 전환하여 이용객의 분산 유도

\* (오전) 05:30 ~ 06:30, 09:00 ~ 10:00 // (오후) 16:00 ~ 17:00, 19:00 ~ 20:00

	일반	청년·2자녀·어르신	3자녀	저소득
현행(본예산)	20%	30%	50%	53.3%
정부안	30% (+10%p)	45% (+15%p)	75% (+25%p)	83.3% (+30%p)
<b>국회확정 (시차출퇴근)</b>	<b>50% (+30%p)</b>	<b>60% (+30%p)</b>	<b>80% (+30%p)</b>	<b>83.3% (+30%p)</b>

\* 시차출퇴근 시간대 환급(+30%p)은 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에 더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성격

○ (유류비) 농어업·임업 종사자, 연안화물선·여객선 등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부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유류비 지원 강화(+0.2조원)

- 봄철 영농활동에 차질 없도록 농업인이 주로 사용하는 **신규농기계 3종** (트랙터, 경운기, 콤바인)에 활용하는 **경유 유가연동보조금** 한시 지급(529억원)

-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(+94억원)하고,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 대상 **저금리 정책자금** 추가(+330억원)

- 임업 종사자가 사용하는 경유에도 한시적으로 **유가연동보조금** 지원(+3억원)

- 고유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**연안여객항로 한시 지원 확대**(+68억원)

○ (비료·사료) 요소 등 원자재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무기질비료의 구매비 지원 단가(18→24만원/톤)를 한시적으로 **상향**하여 농가비용 경감(+73억원)

- 축산사료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**원료 구매비용**을 저금리로 대출(+500억원)

## ② 에너지·신산업 전환, 공급망 안정화 : +0.3조원

- (재생에너지) 아파트 베란다에 가정용 태양광 설치 활성화를 위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\*(+5~+15%p)하여 민간의 자부담률 완화(25→20%, +125억원)
  - \* 분담비율 : (정부안) 국비25 : 지방비50 : 자부담25  
→ (서울) 국비30 : 지방비50 : 자부담20, (서울외) 국비40 : 지방비40 : 자부담20
- 노후된 인버터 교체하는 자금 지원으로 국가전력망 기능 개선(+118억원)
- (탄소중립) 내연차 운행비용 증가에 따른 전기차 구입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전기승용차 +2만대 추가 보급(26→28만대, +600억원)
  - 재생원료를 사용한 신규친환경 종량제봉투의 제작설비 지원(329개, 138억원)
- (나프타) 석유화학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입 지원물량(213→261만톤)과 단가(304→344\$/톤)를 상향하고, 기초유분\*도 대상에 포함(+0.2조원)
  - \* 에틸렌, 프로필렌, 부타디엔, 벤젠 등 나프타를 원료로 생산하는 중간 원료
- (관광) 고유가에 따라 타격을 받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여행시 경비 절반을 환급하는 ‘지역사랑 반값휴가\*’ 확대(20→30만명, +40억원)
  - \* 개인당 10만원, 팀당 20만원 한도로 여행경비의 50% 환급

## ③ 민생 안정 등 : +323억원

- (국민안전) 중동 지역 고위험 공관에 방탄모·방탄복 등 안전장비를 구입(+12억원)하고,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한 구호 뒷받침(+5억원)
  - 호르무즈 해협에 한달 간 억류된 중소기업 소속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 9척에 대한 보험할증료 지원(1척당 최대 1.5억원, +14억원)
- (취약계층)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확대(2.65→2.85만명, +212억원)

## 2. 감액 반영 : △0.6조원

- △0.6조원을 감액하여 증액소요 0.6조원 충당
  - 미투자금·회수금 등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투자가 가능한 펀드·융자 사업 (△0.3조원), 보증기관의 재정 여력을 감안한 출연금 축소(△0.1조원) 등
- ‘감액범위 내 증액’ →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국채·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금번 추경의 기본방향 유지

## IV. 향후 계획

- 정부는 4.11일(토)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여, '26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배정계획(안)을 상정·의결할 계획
  - 국무회의 의결 직후 행안부, 기획처,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방식·시기 등에 대한 브리핑 진행
- 아울러, 4.11일(토)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신속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, 즉시 집행작업에 착수
- 중동전쟁에 따라 직·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민생과 기업·피해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 완화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
  - (고유가 피해지원금) 4월 중 기초·차상위 가구 대상 1차 지급 → 관계부처 TF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소득 하위 70% 대상 2차 지급
  - (모두의 카드)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적용하여 5월 중 환급 추진